

마하무용단이 9월 21일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열릴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2018년 6월 생명나눔실천본부 일면 스님과 함께한 창단식에서.



자비나눔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사진은 연화원 20주년 행사 모습.

“쉽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춤, 케네디 센터서 선보일게요”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⑧

마하무용단 연습 현장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면 남양주 불암사 경내가 흥겨운 음악소리로 가득 찬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 산하기관인 마하무용단의 연습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무더위를 뚫고 불암산을 찾은 7월 24일 오후, 그날도 어김없이 극락전에서 우렁찬 북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북소리에 이끌려 발길을 멈춘 참배객들은 하나같이 “고요하기만 할 것 같은 사찰이 더욱 활발발(活潑潑)한 공간이 된것 같아 생기가 도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현숙 단장이 진두지휘하는 마하무용단은 2018년 6월 정식 창단했다. 봉사의 삶으로 나눔을 행하는 평범한 주부들로 구성된 마하무용단은 개개인의 색깔이 뚜렷한 40대부터 60대 초반 연령대 23명이 단원으로 있다. 마하무용단의 이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지어줬다. ‘마하’는 산스크리트어로 크고 위대함 등을 뜻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며 고귀한 나눔을 행함에 있어 큰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뜻이 담겼다. 큰 의미가 담긴 이름에 걸맞게 마하무용단은 일면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통무용과 함께 나눔과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마하무용단은 흥겨운 음악과 춤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위안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생명나눔 희망걷기대회,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환자치료비 모금을 위한 산사음악회와 같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연례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복지관과 요양병원, 군부대, 각종 사찰행사에서 연락이 오면 어김없이 수락한다. 젊은 층에게는 전통무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익숙한 우리 것을 선보인다는 것에서 자부심이 크다.

엄마이자 아내, 딸, 며느리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 새로운 분야에 열정 하나로 뭉쳤기에 더욱 그렇다. 건강한 자기계발과 재능기부의 기본은 자비와 나눔이다. 불자로서, 불교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고 열정을 갖고 귀한 땀을 흘리며 만들어는 단체이기에 더욱 고귀하다.

마하무용단원 중 11명은 9월 19~30일, 미국으로 떠난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다.

첫 무대는 9월 21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에서 시작된다. ‘2024 Fantasy of Korea’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마하무용단은 한국의 궁중무용인 ‘향발무’와 민속무용 ‘한량무’ 등 다양한 한국전통춤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튿날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가 주도한 무대에 이어 뉴욕으로 넘어간다. 9월 25일 타임스퀘어에서 버스킹 공연이 준비됐고 27일에는 뉴욕한인타운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네 차례 무대에서 마하무용단은 ‘향발무’ ‘한량무’ ‘태평을 춤추리라’ ‘엄마아리랑’ ‘흥이로구나’ 등 일곱가지 무용을 선보인다.



9월 21일 미국 케네디 센터서에서 진행될 공연 ‘2024 Fantasy of Korea’ 포스터.

마하무용단의 이번 미국공연은 세 번째 해외공연이다. 2018년 11월 28일~12월 6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루카시에서 열린 ‘아리랑 페스티벌’에 동참한데 이어 2022년에는 미국 뉴저지 백림사에서 열린 개산대재에 참여했다. 당시 현지에서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무용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됐다. 한국전통문화 외교사절단으로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인다는 것에서 자부심이 큰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번 미국공연을 앞두고, 11명의 단원들은 설레임을 감추지 못했다.

김은숙 부단장(52)는 “올해 공연을 보고 내년에도 섭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연습 또 연습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고, 김도희 수석(59)은 “춤을 추다 보니 케네디 센터에까지 진출하게 됐다. 걱정도 많지만 연습한 만큼 최선을 다해 국위선양하고 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미경 씨(53)도 “큰 무대이다 보니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이 크다”면서 “전공자도 아니고 늦게 무용을 배워 하는 만큼,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긴장하면서 매일 연습에 매진한다”고 말했다.

정현숙 단장은 “마하무용단은 쉽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무용 공연을 추구한다”면서 “처음 무용단이 창립됐을 때 가진 포부인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대중과 소통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문화외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 홈페이지 : www.lisa.or.kr
-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30th Anniversary 1994-2024

2024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30주년의 해

30주년 기념식

2024. 10. 12.(토)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30년사 광고 모집

본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생명나눔 운동의 30년 역사를 담은 30년사를 발간합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순번	광고 사이즈	광고료
1	A4	2,000,000원
2	A4 절반	1,000,000원

접수기간 7월 31일 까지

광고료 접수 계좌 농협은행 301-0009-6876-31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광고 접수 문의 : 02-734-8051